

2025/07/02 기록

작성자: 부재현

기호학의 약점은 존재자들의 본성과 동떨어져서 의미생산을 한다. 그러나 기호학이 자연으로 관심을 돌릴 때, 그리고 비인간 존재자들이 그 그림으로 편입될 때, ‘담론’이나 ‘의미’와 같은 말들은 모두 소박한 실재론(칸트식의)이나 자연주의로 후퇴할 위험 없이 폐기될 수 있다.

기호학자들이 스스로 ‘의미’에 국한한다고 느끼는 것은 오직 그들이 사물 대신 쓰여있는 텍스트를 연구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기호학자들은 잘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이 자신들에게 적합할 때는 언제나 그것을 믿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자들처럼 의미뿐만 아니라 사물의 존재도 믿었다. 그러나 기호학에서 의미를 조금만 포기한다면 사물의 기호학을 제창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만약 누군가 경로를 구축하거나 질서를 만들고, 방향을 창조하면서 기호학을 번역한다면, 그가 분석하고 있는 것이 언어인지 객체인지 상술할 필요가 없다. 언어와 ‘상징’을 다룰 때처럼 숙련, 행위, 물질을 다룰 수 있게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물을 텍스트의 수준(의미생산, 상징)까지 높이거나, 텍스트를 사물의 존재론적(실제하는 외형, 움직임)수준까지 높인다.

중요한것은 위와 같은 것들이 일종의 환원주의의 형식이 아니라 사물의 지위 상승을 의미하며, 새로운 혼종적 지위가 모든 존재자들에게 텍스트적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 인식된 다양성과 순환하는 생존양식은 물론, 우리의 표상 ‘밖의’ 사물들에서 인식된 실재성, 견고함, 외형 모두 다 부여한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것은 표상과 사물간의 절대적인 경계이지만, 그것이 반-코페르니쿠스 혁명(칸트의 코페르니쿠스 전환을 의미)이다. 즉 객체에서 인간인식으로, 세계에 대해 서 있는 주체(Subjekt für die Welt)가 동시에 세계 속에 존재하는 객체(Objekt in der welt)로 지위가 재분배 된다.

한편으로, 창조된 기호학. 그에 대한 합리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 어떤 작품의 경우, 사물에서 비롯되는 인간 감수성의 확장을 통해 라투르의 철학을 의미심장하게 번역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미학적 사유를 켈탱 메이야수와 그레이엄 하먼이 섬세하게 조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 미시적이거나 거시적일 수 있는 관계의 지형도에 해상력을 높인 것이다. 그러나, 객체 대상에 관한 미학적 움직임 속에서 의미앞에 선재하는 물질을 대표하는 공예(craft)의 특성이 그 정합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라투르식의 비유에서 동일한 어근인 악마(demon)와 시민(demos)은 쌍둥이적 관계를 지니고 민주-주의(demo-cracy)의 반쪽을 이루며, 악마(demon)에 의해 쫓겨 다닌다. 이 둘 모두 인도-유럽어의 어근 da에서 분화된 표현이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합쳐야 할 많은 모순점들에 의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내포한다. 예술의 혼계에서, 그러나 같은 지역을 공유한다는 구획이 바로 분열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동일공간을 공유하고 모순적인 근심으로 분열된 작업들 혹은 담론, 예술에서의 민주주의가 이런 불안정한 불확실성을 함께 가져가는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